

KEPIC-Week



국내 유일의 전력산업계 민간단체표준인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 전기협회가 KEPIC의 적용활성화와 토론, 홍보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KEPIC-Week 행사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며,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8월 30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전력산업계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한 KEPIC-Week는 정부, 한전 및 발전사업자, 산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여(KEPIC 유공자) ▲ 기술 분야별 위원회 및 세션 운영 ▲ 전력산업 전시회 ▲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전력산업계의 관심사를 한자리에 모으고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2011 KEPIC-Week는 KEPIC 2010년 국·영문판의 성공적인 발행과 KEPIC의 UAE 원전건설 적용 확정 등을 계기로 위상이 한층 강화된 KEPIC의 기술고도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는 우리 협회의 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987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한 KEPIC 개발 사업이 2011년에는 새로이 6단계에 접어들면서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내 기술 집약 및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또 한번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KEPIC-Week는 올해에도 여러 분야의 특별 세션을 개설하여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기 분야에서 IEEE-SA(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개 및 국내 기술자들의 IEEE 위원회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며, 공조분야에서는 그동안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최되었던 △원전공조 워크숍 △원자력국제표준화 워크숍 △원자력코디네이터 워크숍 등을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AFCEN 고위관계자의 프랑스 원자력 표준 개발 관련 강연과, 미국에디슨전기협회(EEI) International Programs 분야 Vice President인 Mr. John J. Easton Jr.의 미국 전력산업 분야의 최근 동향에 대한 강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KEA

